

“찬불가 대중화에 큰 업적”

지휘자 정옥녀 선생 추모음악회 20일 KBS홀서



살아 생전 열정적인 지휘로 관객을 사로잡은故 정옥녀씨.

한 평생을 찬불가와 사랑을 나누며 불꽃처럼 살다간 불교계 최초의 전문 여성 지휘자故 정옥녀. 그녀를 기리는 음악회가 열린다. 바라오페라단과 청통마야합창단은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故 정옥녀 선생 1주기 추모음악회-떠나는 이 마음 그리고 가을교차’를 마련한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될 노래들은 청룡사 주지 법운 스님의 시에 정부기

중양대 교수가 곡을 붙인 창작곡들. 법운 스님이 지난 7월 발표한 시집 <망루>에서 가려 뽑은 15편의 시에 정부기 교수가 곡을 붙였다. 이 중 ‘떠나는 이 마음’은 정옥녀씨가 남긴 유작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씨가 불교 음악계에 남긴 업적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불교계 유명 음악 단체들도 이번 음악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와

삼보불교음악협회가 리허설에 한창이다. 무대에는 이외에도 청통마야합창단과 모각사 합창단, 불교방송합창단, 삼보불교음악협회 산하 관공회, 바라오페라단이 음성공양을 니르바나 관현악단이 반주를 맡는다.

1부는 평소 정옥녀 씨와 절친했던 메조 소프라노 연정숙씨의 ‘보내는 이 마음’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바리톤 김성범씨가 ‘환희의 찬가’와 ‘통일의 노래’를, 니르바나관현악단 강형진 단장이 ‘바이올린 독주’를 선사한다. 바라오페라단도 ‘춧발’ ‘무지개’ 등의 중창과 ‘경배하러 오시네’ ‘부처님의

불교계 음악단체 음성공양 유작시 ‘떠나는 마음’ 연주

김로범’ 등의 합창을 들려준다.

2부 역시 독창과 독주, 중창과 합창으로 꾸며진다. ‘가을교차’ ‘당신’ ‘은화한 여정’ ‘님의 사랑’ 등이 연주된다. 정부기 교수는 “불교음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불심이 강했던 정옥녀 씨를 살아생전 사할 합창단 창단의 확산과 찬불가 대중화에 큰 공헌을 세웠다”며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그녀의 불교음악 사랑을 기리는 연주회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2)2612-0609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정옥녀 선생은?

정옥녀 선생은 고대 경영대학원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당시로서는 불교계의 극히 드문 이력을 지닌 재원이었다. 1976년부터 조계사 합창단과 함께 교계 최초로 창단된 청룡마야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故 김용호 선생에게 음악이론과 지휘를, 김규환 선생에게 작곡을, 지소영 선생에게 발성법을 사사한 후 본격적인 불교계 전문 지휘자의 길을 걸으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지방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개의 교계 사찰 합창단을 지휘했다. 특히 정씨는 국내는 물론 독일, 대만, 일본, 미국 등 각국에서 해외 순회공연을 하며 한국불교음악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깊고 진한 울림 선사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장사의 단독 콘서트로 진행



미국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소리꾼 장사의(사진)이 청량사에서 깊고 진한 울림을 선사한다.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10월 6일 오후 7시부터

특설무대에서 ‘2007 청량사 산사음악회-장사의의 빛날 나들이’를 마련한다. 음악회는 장사의의 지난 6월 미국순회 공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단독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된다.

참여 음악인들 또한 당시 미국공연에 함께 했던 재즈 그룹 정재열 밴드, 색소폰리스트 최선배,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사물놀이팀이 출연해 ‘필레꽃’, ‘국밥집에

서’, ‘하늘가는 길’, ‘동백아가씨’, ‘희망한단’ 등을 연주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가을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맛보는 장사의씨의 열정적인 음성공양은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속세의 번뇌를 노래로 날려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672-1446 김주일 기자

황룡사탑의 환생...경주로 오이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0월 26일까지...테마별 행사 풍성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0월 26일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4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800년 전 문물계의 해 불타 사라졌던 신라불교의 상징 황룡사 9층 목탑이 경주타워(사진)로 환생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타워는 아파트 30층 높이인 82m 짜리 대형 건축물이다.

타워는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이 터널처럼 뚫려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대형 건축물에 목탑이 음각된 것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타워 전체가 우리로 덮여 있으며 최상층에는 고공전망대와 디지털 문화전시관이 자리잡았다.

엑스포 조직위는 경주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경주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440여 원을 투자했다.

이번 엑스포 최대의 볼거리는 경주타워를 스크린상아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쇼다. 조직위는 멀티미디어쇼를 위해 첨단 영상 프로토타입 PIG와 화려한 레이저 그래픽

을 활용해 천년고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국보 91호인 ‘도제기 마인돌상’을 의인화한 3D입체 애니메이션 ‘토우대장 차차’와 세계 유명 테마파크에서 상영 중인 입체영화들이 매일 상영된다. ‘CT체험관’에서 ‘토우대장 차차’의 판타지 세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신라 왕경술로하스 축제’에서는 삼국유사 미로체험, 신라유물 발굴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 20개국의 공연예술단이 참여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월드 B-boy 페스티벌’, ‘세계꼭두극축제’, 한국의 신화와 복식, 건축 등의 전통문화가 디지털로 되살아나는 ‘한국디지털문화원형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행사기간동안 엑스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는 ‘백남준 특별전’도 열린다. 이 전시에는 ‘108번뇌’와 같은 유명 작품들과 백남준의 그림, 글씨, 습자 등의 작품 100여 점이 공개된다. 김주일 기자



대구·경북 금석문 탁본전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정완)은 10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 1실에서 ‘현의 향기 - 대구·경북 금석문 탁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 동방금석문연구회 동호회 회원들이 제작한 동화사 마애불 탁본을 비롯해 동화사 동종인 약대사비, 영천 은해사 추사 김정희 편액, 포항 법광사 석가불사리탑 중수비 등 대구와 경북지역의 불교유물과 금석문 탁본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053)768-6051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②

무등산 유봉암

장인성 시인

바람은 옛일을 쓰디듣고
햇빛은 바람을 쓰디듣는
무등의 명화여
오늘도 우리는 경건히 살았다고
유봉암 부처님께 두 손 모으는
입석과 선바위의 지극한 불심이여



구룡암(圭峰庵) - 무등산 우뚝우뚝한 바위를 울타리로 삼고 바람에 서걱이는 조릿대를 카펫처럼 깔고 있는 절경 속의 입자 그림 : 이상배 화백

외설 범양암에 2인인등과 연등으로 범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울저를 손으로 문지르면 악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설범양을 개설.

세계 최대 외설(설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 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중남지방문역계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세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지순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 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바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나눔표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기답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